

현장시선



이 은 간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경제, 기업 등 경제주체의 심리 변화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호전될 경우 소비와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반면, 국가적 재난 등에 따른 소비, 투자 심리 위축이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좋은 예다. 심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심리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선제적이고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

제주경제, 자신감 회복이 우선이다

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 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매월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 제주의 경제주체들은 지역경제 상황을 다소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의 경기실사지수 모두 기준치인 100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중반 이후 기준점인 100을 중심으로 소폭 등락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큰 폭 하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가 바라보는 제2공항은 더욱 심각한데, 코로나19 이후 업황 및 매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20~60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경제 심리 지표가

부진한 이유는 2018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 중인 지역경제에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염병이라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백신이 개발, 보급되기 전까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심리가 쉽게 호전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과도한 비관적인 심리가 이어질 경우 투자 심리와 실물 경제를 위축시켜 실제로 더 큰 위기 상황을 가져오는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제주체의 심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제주경제내 코로나19 위기

를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10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내국인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으며,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제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심리가 극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소상공인 등 일부 민생 부문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다. 그간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온 제주경제가 특유의 자생력을 바탕으로 기업, 도민이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오늘부터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세요

대구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었던 비결로 마스크를 꼽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구는 올해 초만 해도 국내 최대 피해지역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 역할을 한 셈입니다.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위험을 8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에서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유흥시설 5종·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목욕장·음식점·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 등입니다. 또 PC방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아·미용실, 놀이공원, 상점·마트, 독서실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입니다.

방사형 마스크, 벨트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질환자 등은 단속 예외 대상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발병이 이어지면서 12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140명을 넘었습니다. 비록 전날(146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8일부터 5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제대로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민원 ‘붓물’... 막대한 예산 무색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3년째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착은 커녕 불편민원이 ‘붓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원대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 ‘퍼주기’ 논란 속에 여전히 이용객들의 민원사항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보다 강력한 ‘신상 팸발’의 원칙 도입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버스 불편 신고는 무정차 138건, 시간 미준수 64건, 경로 이탈 37건, 불친절 24건 등 총 293건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버스 불편 신고는 559건입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해를 넘겨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불편 신고 유형별로는 대부분 무정차 불친절 경로 이탈에다 시간 미준수 등입니다. 내 용을 볼 때 제주도와 운수회사의 개선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도는 올해 제기된 불편 신고사항 293건 중 158건 과징금 부과, 120건 경고, 11건 불문, 4건 시정 조치 등을 내렸습니다. 도는 여기에다 경고 이상 행정처분 시 ‘논란’ 속에 여전히 이용객들의 민원사항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보다 강력한 ‘신상 팸발’의 원칙 도입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 접수된 버스 불편 신고는 무정차 138건, 시간 미준수 64건, 경로 이탈 37건, 불친절 24건 등 총 293건에 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버스 불편 신고는 559건입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해를 넘겨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불편 신고 유형별로는 대부분 무정차 불친절 경로 이탈에다 시간 미준수 등입니다. 내용을 볼 때 제주도와 운수회사의 개선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열린마당

제2공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말하다



오 병 관

제2공항 선상읍추진위원장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줄기차게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제주도의 미래 항공수요와 현 공항의 확장가능성 등 모든 검토 끝에 제2공항 건설을 결정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검토해 불가로 결정했던 제2공항에 대한 보완대책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토론회를 거쳤으나 결말을 끌어내지 못했다. 승복 없는 토론회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논리를 뒤집거나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평행선만 이어갔다. 제주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는 문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역지로 강행한다면 엄청난 건설비용이 들고 해

양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진다. 제주시의 도로, 교통, 쓰레기, 오폐수 문제와 2만여 가구가 겪고 있는 소음 피해도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사안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반대단체의 대변기관에 다르지 않다. 인구가 많은 제주시와 서부지역 주민을 선동해 편 가르기와 쫄 세우기로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갈등해소특위가 아니라 갈등조장특위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지금에 이르러 갈등해소특위는 제2공항을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공항 보완 가능성을 여론조사 문항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해선 안 된다. 모든 절차가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불확실한 대안으로 끌고 가려해서는 안 된다. 안전을 선택한 정부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도의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상과 상생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뉴스-in

“4·3특별법 추가개정 발의 도움 안돼”

야당 개정안 움직임 부정적 ○... 12일 국회에서 열린 4·3특별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뒤 일부 야당 의원이 추가적인 전면 개정안 발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축. 오 의원은 야당의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공청회 뒤 기자회견의 응답에서 “여야의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법 개정안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부미현기자

에서 영농작업반 발대식을 개최. 이날 고영권 정부부지사는 “영농작업반의 전문화와 인력양성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제주 농산물 소비 촉진운동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 오은지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허한권 (제주동부경찰서 근무) 어머니 순흥안씨 보아 [6·25참전용사(해병4기), 국가유공자, 향년 88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11일 22시 28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 일 포: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발인일시: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허한권 며느리 김은옥
허 진 김귀자
딸 허복선 사 위 강승욱
손 자 허상범 외손자 강성익
민범 외손녀 강소영
손 너 허민영 소미
민경 소라
민선
※ 연락처: 허한권 010-3690-0805
허 진 010-3994-8669
허복선 010-4066-9586

상속한정승인(심판정정)공고
망. 권택기(1956.2.2생), 2016. 9.7 망
· 최후주소: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776,102동-401호 (대진유도파아벨리자)
망 권택기의 상속인들은 2016년 10084 상속한정승인(제주지방법원) 결정을 받았으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부동산)을 금번에 발견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공 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제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0즈기88 심판정정(제주지방법원)
. 한정승인 수리(심판정정)일 2020. 11. 9
. 청구인: 정일업, 권성준
.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 신고처: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255
. 적극재산: 전라북도 진안군 안원면 삼막리 356-5 도로 271㎡
2020. 11. 13

전기사업 의견수렴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하여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발전사업 명칭: 제주 그린에너지 발전사업
2.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막리 790, 747, 786-1, 787, 788-1(5필지 면적 20,000㎡)
3. 발전사업 주요 내용
- 발전설비용량: 100 MW
- 사업개시예정일: 2023년 1월 (운영기간: 20년)
4.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주)제주탐에너지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 기간: 신문 고지일로부터 30일
- 의견제출 방법: 의견 제출하려는 분의 이름, 연락처, 의견 내용을 이메일(jejuopenenergy@naver.com) 문의 하시던 이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 예정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료 수년간 수확 퇴적후 심심마을 작물과 소똥
제주먹고사리뽕리와 등글레뽕리
뽕밭 전. 밭. 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야생동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I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